

오레곤에덴장로교회

Eden Presbyterian Church of Oregon P.C.A.

2015년 11월 29일 (제20권 48호)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

원로목사	이경천 (Rev. Joseph K. Lee)		
담임목사	원정훈 (Rev. Peace J. Won)		
부목사	김은철 (Rev. Eun Chul Kim)		
전도사	스테파니아 (Stefania Tarasut) 드보라 (Deborah J. Csergei)		
	니콜라스 서 (Nicholas Yi So)		
파송선교사	정미연 (Mi Yun Jeong)		
시무장로	이양수 (Yang Soo Lee)	정성재 (Samuel S. Jeong)	
	박홍문 (Kenneth H. Park)	이효성 (Hans Lee)	
	이곤일 (Chris Lee, 휴무)	임상철 (Sang Chul Lim, 휴무)	
지휘자	이효성 (Hans Lee)	이정아 (Jung-Ah Lee)	
반주자	윤경은 (Kyung-Eun Yoon)	서성경 (Seong Kyung Seo)	
	윤지연 (Jiyeon Yoon)		
오르간	박인화 (In-Hwa Park)		

협력선교단체 및 선교사

난닝(LRC/김00) 동북아 (과기대/김00) 러시아(GP/박동국) 말리(Come/정민경) 북한(모통이들) 베트남(COME/강혜림) 볼리비아(대신/장형식) 알바니아(WEC/황태연) 인도(JDM/서관옥) 중국(이안드레) 중동(박00) 캄보디아(하베스트/차세대교육/김혜준 선교사)태국(인터서브/정미연) 파키스탄(SIM/김인영) 필리핀(OMF/장균) 필리핀(MKC/하지연) MK장학사역(M&S) 온두라스(장동진/신학교/정소년 장학) 온두라스 현지인교회(모델로/과나까스데/실리시오)

1200 SW 185th Ave. Beaverton, OR 97006 <http://www.oregoneden.com>
사무실 503-848-8168

교회소식 (Announcement)

새 가 족 김유성/지수현(하린) 5남/5여 연변과기대 (201)-394-6789/(765)-491-3374
박효숙(김수안) 2여 다운타운 (678)-516-0054
김태석 청년, 인도 (678) 316-7733
권연주/소로몬 5여/5남 Faith AC (808)-753-1888/(949)-648-2192
구분회 2여 아프리카 (808) 291-1668
이옥실 1여 아프리카 949/331-7451

대 강 절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임 명 2016 교회 조직 발표 및 사역자 임명합니다.

에 덴 리 더 모 임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2시 15분 - 5시 30분/본당) (자녀들/유년부실)
대상: 2016 구역장/교사, 전도회장 제직회 부서장, 총무 장로, 안수집사, 권사

14주 성경공부 오늘 성경공부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한 글 학 교 오늘 한글학교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담 임 목 사 이번 주간 베트남 선교지 방문합니다.(11.30-12/5)

성 탄 연 합 성 가 성탄절 연합성가 연습 있습니다. (매주 토 7:00 할렐루야외)

장로, 안수집사 다음 주 오후에 있습니다. (2시 30분/친교실)

권 사 교 육

정 기 당 회 다음 주 오후에 있습니다. (3시 30분)

친 교 2015년 하반기 친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헌금 \$150/봉사는 구역에서 합니다.)
11월 친교 배식/정리는 3남전도회 입니다.
12월은 4남전도회 입니다.

교 우 동 정 권선엽 김경자 김무성 류시정 전기민/신민경 한국
임상철/윤경은 이효성 조민기/최수미, 한종선/한지나 타주

소천: 강정아 권사 어머니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권양금/김영주/송병수/윤분의/이영실/이지영/이지현/이정열/최혜선)

모임 및 행사 (Events)

11월 29일 (주)	2016년 교회조직 발표 및 리더모임 대강절
12월 6일 (주)	장로,안수집사,권사 교육/정기당회 새가족 모임
12월 11일 (금)	금요기도회(8시)
12월 13일 (주)	2015년 결산 및 2016년 예산을 위한 부서장 모임
12월 20일 (주)	성탄주일/3분기 제직회
12월 24일 (목)	성탄절 전야예배/주일학교 발표
12월 27일 (주)	정기 공동의회

◆ 선교지소식(이산한 우르두족/복음화율 0.5%미만)



종 교: 이슬람(99%)
인 구: 약 64,900명
공 용 어: 우르두어
성 영: 경있 음
예 수 영 화: 있 음
부 문 방 송: 있 음

서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 동쪽에 위치한 모리셔스는 큰 섬 1곳과 2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섬들 중의 하나인 로드리게즈 섬은 다른 섬들로부터 동쪽으로 500km나 떨어져 있다. 모리셔스는 또한 디에고 가르시아 섬과 차고스 아רכipelago 섬에 대해서도 영토권을 주장한다. 1715-1810년에 프랑스 식민지였고, 1968년 독립할 때까지는 영국 식민지였다. 1968년에 인종 전쟁이 일어난 후,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의회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인종과 종교에 따라 형성된 여러 분파가 정당 정치로 나라를 다스린다. 인도계 힌두교 신자 연합이 주류 정치 세력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점차 다른 집단과 연합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인도의 힌두교에 강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종교의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 힌두교도들을 향한 모든 종교적 선교사역은 냉대를 당하고 있다. 우르두 사람들은 문화적, 역사적 요소에 바탕을 둔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요소로는 이슬람교, 페르시아 문화전통, 우르두어와 북부 인도에서의 이슬람 우위의 전통 등이 있다.

1947년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리되기 전에, 우르두인들은 아주 넓은 범위의 경제적, 사회적 계층들을 형성하고 있었다. 파키스탄이 1947년 독립할 때, 우르두어를 쓰는 많은 무슬림들이 인도에 남아 있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주하곤 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여러 이슬람 분파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터키와 남아공화국의 우르두인들은 99.9%가 수니파 무슬림이지만, 캐나다와 파키스탄에서는 99.9%가 하나피파 무슬림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기독교에 대해 매우 직선적인 반응을 보인다. 오래도록 그들을 진리와 격리시켜온 장애물들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의 열심이 필요하다.

◆ 기도제목

* 인종과 종교가 매우 다양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 기독교인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 형식적인 종교의 자유를 벗어나 참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자.

* 모리셔스의 정치가 종족과 종교적인 당파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우르두인들 가운데서 영화 "예수"의 효력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기독교로 개종한 소수의 우르두 무슬림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격려 하시며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 이산한 우르두인들 가운데 강건한 지역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예 배 순 서

9:30/11:30 예배인도 원정훈 목사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인 도 자
* 참회의 기도 Prayer of confession다 함 께
* 신 앙 고 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다 함 께
성 시 교 독 Responsive Reading	교독문 34번다 함 께
찬 송 Hymn	32/105장다 함 께
기 도 Prayer	1부: 김진구 집사 2부: 김지영 집사
헌 금 Offering다 함 께
* 봉 헌 송 Offertory Hymn353장 1절.....다 함 께
봉 헌 기 도 Offertory Prayer인 도 자
요 리 문 답 Catechism다 함 께
환 영 광 고 Welcome인 도 자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눅 10.38-42 (p 신 111)..... 인 도 자
찬 양 Choir성 가 대
설 교 Sermon	‘ 예수님의 심방 ’ 원정훈 목사
* 찬 송 Hymn 85/448장/주기도문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1부: 원정훈 목사 2부: 이경천 목사

* 표는 다 같이 일어서서 (* Indicates please stand)

기도/안내/봉사

	이 번 주 (11/29)	다 음 주 (12/6)
기 도	1부:김진구/2부:김지영	1부:이효성/2부:백동현
안 내	1부:김동식 2부:김현정/임향숙	1부:김동식 2부:김현정/임향숙
헌 금	1부:윤석영/강정숙 2부:강지호/송태상	1부:김동식/김선영 2부:김정의/장주영
친 교 봉 사	장일선/서호민 북한	캄보디아 4남전교회
배 식 / 정 리	3남전교회	
주 차 안 내	윤석영/김병수/오재영	김제구/천성진/강지영
토 요 청 소	김정의/홍동호(12/5)	성승훈/박현수(12/12)
타 운 봉 사	사랑팀(12/5)	공홀팀(12/12)
주 간 관 리	이효성/김동식/윤경은/임천화	이효성/김동식/윤경은/임천화

예 배 시 간

수요예배 (7:30PM)	이번 주: 캄보디아 다음 주: 파키스탄	설교: 이경천 목사	기도: 김지영 집사 기도: 김진구 집사
새벽예배	화 - 수 5:30AM 목 - 금 5:30AM	본 당	김은철 목사 김은철 목사
금요찬양 기 도 회	매월첫째세째(한어) 둘째(All Generations)	8:00PM	본 당 원정훈 목사
영어예배 교회학교	E M 주 일 영 아 부 주 일 유 치 부 주 일 유 초 등 부 주 일 중 고 등 부 주 일 중 고 등 부 금요일 AWANA 수요일 한글학교 주 일 청년 KM 주 일	9:30AM 11:30AM 11:30AM 11:30AM 11:30AM 7:30PM 7:30PM 1:30PM 1:40PM	교 육 1 Stefania Tarasut 유 치 부 양해심 집사 유 치 부 Robin Williams 교 육 1 Deborah Csergei 교 육 1 Stefania Tarasut Nicholas Yi So 유 년 부 Se-Ra Chung 교 육 1 김동숙 집사 교 육 2 김은철 목사

성경/기도모임

목 요 매 일 성 경	목 요 일 9:30AM	교 육 2 원정훈 목사
중 보 기 도	목 요 일 9:30AM	교 육 2 김은철 목사
성 경 공 부	1 4 주 제 1:45PM	교 육 2 원정훈 목사
마 더 와 이 즈	목 요 일 / 토 요 일	

1년통독성경읽기/매일성경

	구 약	신 약	매 일 성 경
11/29(주)	겔 34-35장	벧후 2장	고전 15:12-19절
11/30(월)	겔 36장	벧후 3장	고전 15:20-34절
12/01(화)	겔 37장	요일 1:1-2:6절	고전 15:35-49절
12/02(수)	겔 38-39장	요일 2:7-17절	고전 15:50-58절
12/03(목)	겔 40-41장	요일 2:18-29절	고전 16:1-12절
12/04(금)	겔 42-43장	요일 3:1-10절	고전 16:13-24절
12/05(토)	겔 44-45장	요일 3:11-24절	암 1:1-2:3절

예배는 삶이 되며, 삶은 예배가 되게 하소서

교회학교 말씀

영 아 부 : 창세기 (Genesis) 3:1-6	양해심 집사
유 치 부 : 요한복음 (John) 14	Robin Williams
유 초 등 부 : 갈라디아서 (Galatians) 5:19-25	Deborah 전도사
중 고 등 부 : 로마서 (Romans) 5:12-21	Nicholas 전도사
E M : 로마서 (Romans) 12:9-21	Stefania 전도사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Heidelberg Catechism)

제77문: 믿는 자들이 이 썬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답: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3-26).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6-17).

Q. 77: Where has Christ promised that He will as certainly feed and nourish believers with His body and blood as they eat of this broken bread and drink of this cup?

A: In the institution of the supper, which reads thus: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In like manner also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this do, as often as ye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For as often as ye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e proclaim the Lord's death till He come. This promise is repeated by St. Paul, where he says: The cup of blessing which we bless, is it not a communion of the blood of Christ? The bread which we break, is it not a communion of the body of Christ? Seeing that we, who are many, are one bread, one body; for we all partake of the one bread.

지난주일 헌금

십 일 조	소계:\$ 6,210.20
주 일 헌 금	소계:\$ 1,413.00
감 사 헌 금	소계:\$ 815.00
선 교 헌 금	소계:\$ 133.00
주 교 수 헌 금	소계:\$ 8.00
추 수 역 감 헌 금	소계:\$ 19,740.00
구 교 수 헌 금	소계:\$ 475.00
친 교 헌 금	소계:\$ 300.00
건 축 헌 금	소계:\$ 2,190.00

주 계 \$31,284.20

하나님께 예배 세상에서 정직 열방을 향한 선교